



나지완

브렛 필

‘5위 전쟁터’ 챔피언스필드

‘챔피언스 필드’가 5위 전쟁터가 된다. KIA 타이거즈의 가을잔치의 꿈이 무르익어가고 있다. 지난 15일 KIA는 에이스 양현종을 앞세워 LG를 꺾고 5할 승률에 복귀, 한화와 공동 5위에 올랐다. 비로 LG와의 경기가 취소됐던 16일에는 1위 삼성이 한화와의 승부에서 대역전극을 연출하면서 KIA는 가만히 앉아서 단독 5위까지 올라서기도 했다.

팀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화제의 팀 KIA가 안방에서 전쟁을 벌인다. SK·한화가 이번 주 챔피언스필드를 찾으면서 5위 전쟁이 펼쳐지게 된 것이다. 예상치 못했던 5위의 달콤함을 맛 본 KIA에게는 이번 주가 올 시즌 성적표를 가늠할 기회이자 고비이다. 18·19일 SK와 홈경기를 치르는 KIA는 20·21일 사직으로 건너가 롯데를 만나 뒤 22·23일 안방으로 복귀해 한화를 상대한다. 5위를 바라보고 있는 팀들과의 대결. 라이벌전이라서 긴장감이 높다. 상위권 팀과의 승부보다 더 패배의 후유증을 클 맞대

KIA, 18·19일 SK...22·23일 한화전 ‘필승, 나를 따르라’ 필·나지완 공격 선봉

결이다. 여기에 주말 우천취소로 인해 월요일 경기까지 소화하면서 길고 긴 한 주가 펼쳐지게 됐다. 전반기 제 몫을 하지 못했던 타자들이 끌고 가야 할 싸움이다. 나지완과 필이 공격의 전면에 선다. 나지완은 긴 침묵을 깨고 후반기 반전 카트가 됐다. 7월 14경기에서 46타수 15안타, 0.326의 타율을 기록한 나지완은 3개의 홈런포를 터트리면서 부활을 알렸다. 8월 12경기의 타율도 0.303. 나지완이 살아나면서 중심 타자들의 부담은 줄었고, 상대 투수들이 느끼는 중압감은 커졌다. 육

심을 버린 나지완에게는 만화의 시간이 다. 계속된 부진으로 부동의 4번 타자에서 밀려난 나지완은 “한 때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두 차례 2군에 다녀오는 등 많은 걸 배우고 깨달았다. 지금은 주어진 자리에서 내 플레이를 완벽하게 하는 게 목표다. 내가 전반기에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팀이 승리를 더할 수 있었다. 팀 승리를 목표로 남은 시즌 최선을 다해 보내겠다”고 말했다. 욕심을 버렸다는 나지완이지만 홈런에 대한 욕심은 남아있다. 홈런은 자신을 대 표하는 무기이자 자존심이기도 하다. 잠잠 하던 파위가 살아나면서 통산 26번째 7년 연속 두 자릿수 홈런에 시동이 걸렸다. 남은 홈런은 3개다. 안방에서 힘이 솟는 필도 공격의 핵심 키워드다. 올 시즌 17개의 홈런을 터트린 필은 안방에서 무려 14차례 담장을 넘겼다. 지난 13일 삼성과의 경기에서도 연타석 홈런을 쏘아올리는 등 홈팬들 앞에서 펼칠 날고 있는 필이다. 세 차례 끝내기 주인공이 되기도 했던 필이 나지완과 함께 챔피언스필드에서 5위 전쟁을 지휘하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LPGA 소녀시대 10대 브룩 헨더슨 우승...역대 3번째

천재 10대 소녀 브룩 헨더슨(17·캐나다·사진)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압도적인 기량으로 첫 우승을 차지, LPGA의 샛별로 떠올랐다. 만 18세 이하 선수가 LPGA 투어에서 우승한 것은 15세에 우승한 리디아 고(뉴질랜드), 16세에 우승한 렉시 토폴슨(미국)에 이어 헨더슨이 역대 세 번째다. 헨더슨은 17일(한국시간)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컬럼비아 에지워터 컨트리클럽(파72·647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2개를 묶어 3언더파 69타를 적어냈다. 최종합계 21언더파 267타를 친 헨더슨은 공동 2위인 장하나(23·비씨카드), 폰아논 팻탐(태국), 캔디 쿵(대만)을 8타 차

이로 따돌리고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헨더슨이 1~4라운드 동안 적어낸 보기는 단 3개에 불과하다. 1라운드와 3라운드에서는 버디만 각각 6개, 7개를 잡았고, 2라운드에서는 버디 6개에 보기 1개를 곁들였다. 이날 4라운드 13번홀(파3)에서 두 번째 보기가 나왔고, 이미 우승이 확정된 마지막 18번홀(파4)에서 세 번째 보기를 적어냈다. 헨더슨은 올 시즌 9개의 LPGA 대회에 출전해 세 차례 상위 5위 안에 들며 가능성을 보였다. 특히 메이저대회인 KPMG 위민스PGA 챔피언십과 US여자오픈에서도 공동 5위를 올랐다. 지난 4월 열린 스웨인 스키즈 클래식에서는 3라운드까지 선두를 달리다가 4라

“롤모델 추신수...3년내 빅리저”

시카고 컵스 입단 권광민

장종고 외야수 권광민(18)이 메이저리그 무대를 꿈꾸며 미국으로 향한다. 최근 시카고 컵스와 계약을 마친 권광민은 17일 서울시 코트야드 메리어트호텔에서 입단 기자회견을 열고 메이저리그에 대한 포부를 드러냈다. 권광민은 “초등학교 때 야구를 시작하며서 메이저리그 진출을 꿈꿨다. 그 꿈을 이뤄가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다”며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뛰는 추신수 선배가 내 롤모델이다. 수비 때 타구 판단, 타석에서 변화구 대처 능력 등을 보완해서 꼭 메이저리거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권광민은 187cm·90kg의 당당한 체격을 지닌 호타준족이다. 장종고에서는 주로 우익수로 뛰며 3년 동안 타율 0.339(121타수 41안타) 1홈런 24타점 13도루를 기록했다. 컵스는 권광민을 2년 동안 지켜본 뒤 영입했다. 권광민은 7월 3일 컵스 입단에 합의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피지컬 테스트를 받았다. 피지컬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권광민의 계약은 최종 성사됐다. 컵스는 권광민에게 120만 달러(약 14억 2000만원)의 많은 계약금을 안겼다. 한국 프로야구를 거치지 않고 미국프로야구에 직행한 한국인 아마추어 선수 중 역대 7번째로 높은 금액이다. 박찬호와 봉준근, 최



희섭 등이 미국에 진출할 때 받은 금액과 같다. 폴 워버 컵스 스카우트는 “권광민은 타격 정확도와 힘, 주루, 송구, 전체적인 수비 등을 갖춘 ‘5툴 플레이어’다”라며 “권광민을 보고자 2년 동안 5차례 한국을 찾았는데 야구를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그를 영입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권광민은 “앞서 메이저리그 도전에 실패한 선배도 있지만, 나는 두렵지 않다. 도전하는 게 기쁘다. 3년 안에 메이저리그 무대를 밟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연합뉴스



광주 동성중(왼쪽)과 진흥중이 2015 U-15 전국중학야구대회 리그 우승을 차지했다. 최근 나주 영산강 저류지에서 끝난 대회 결승에서 영산강 리그의 동성중과 금성산 리그의 진흥중은 각각 경북 경주중과 충북 현도중을 제압하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동성중은 1-0으로 앞선 3회 상대 실책

광주 동성중·진흥중 전국중학야구 리그 우승

과 폭투 등으로 1점을 추가한 뒤 1사 1루서 타진 유장혁의 3루타와 이현서의 투런포로 대거 4득점에 성공, 5-2의 승리를 거뒀다. 선발로 나온 이재원은 4이닝 2피안타 2사사구 4탈삼진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투수가 됐다.

진흥중은 충북 현도중을 6-0 영봉승으로 꺾고 금성산 리그 정상에 올랐다. 1회 2사에서 상대 3루수 실책으로 만루를 채운 진흥중이 류현인의 몸에 맞는 볼과 김동은의 적시타로 3-0의 리드를 잡았다. 진흥중은 3회 류현인의 1타점 2루타

추신수 2경기 연속 타점 강정호 46일만의 휴식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가 2경기 연속 타점을 올렸다. 추신수는 17일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탬파베이 레이스와의 메이저리그 홈 경기에서 2번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 1타점을 기록했다. 0-1로 뒤진 1회말, 텍사스 톱

타자 델리노 드실즈가 볼넷으로 출루한 뒤 2루를 훔쳤다. 추신수는 드루 스마일리의 시속 137km짜리 컷패스트볼을 받아쳐 중월 2루타를 쳐냈다. 드실즈는 여유 있게 홈을 밟았다. 추신수는 프린스 필드의 중견수 뜬공 때 3루에 도달한 뒤 애드리안 벨트레의 우익수 희생플라이로 득점도 올렸다. 한편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강정호(28)는 46일 만에 휴식을 취했다. 뉴욕 메츠와 메이저리그 방문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다. /연합뉴스